

1

최근 5년간(2019~2023) 6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6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48건 발생(월평균 247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건)
2019	198	139	182	214	244	246	262	311	358	327	262	228	2,971
2020	209	173	192	173	265	263	305	311	399	351	286	229	3,156
2021	202	161	201	199	185	238	261	233	287	327	236	190	2,720
2022	159	137	199	201	229	230	267	284	313	326	297	221	2,863
2023	193	183	224	234	258	265	286	291	357	334	230	237	3,092
월평균	192	159	200	204	236	248	276	286	343	333	262	221	2,960

○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 21건(8.5%), 안전사고 13건(5.2%), 화재·폭발 10건(4.1%), 전복 8건(3.1%), 침몰 4건(1.5%) 순으로 발생

* 단순사고는 기관손상 82건(33.1%), 부유물감김 33건(13.1%), 침수 14건(5.5%), 운항저해 11건(4.4%) 등 순

○ (선박종류별) 어선 169척(61.8%), 레저기구 58척(21.2%), 기타선 17척(6.4%), 화물선 10척(3.6%), 예인선 9척(3.1%), 유조선 6척(2.2%), 여객선 4척(1.6%) 순

□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선박소유자·선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작업 전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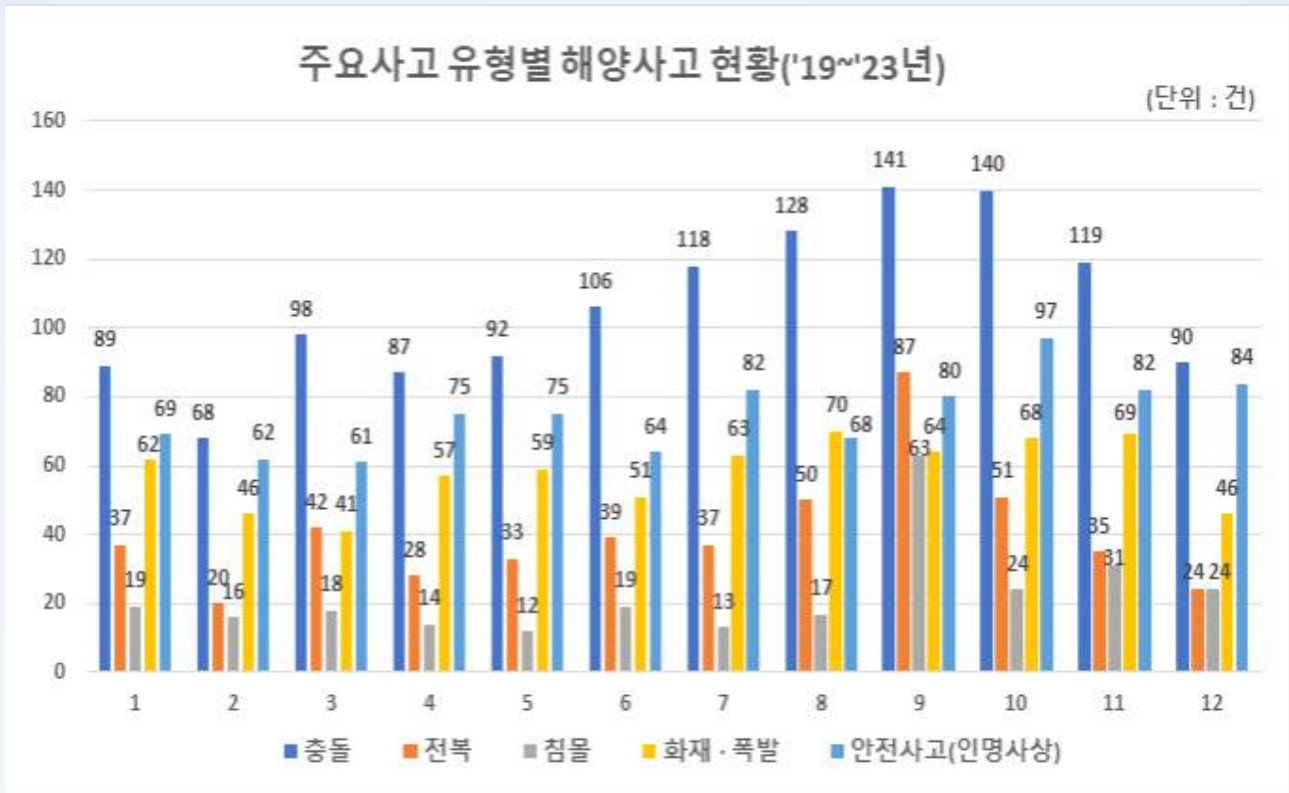
○ (사고현황) 최근 5년간 6월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총 30명으로 이 중 25명(83%)이 '선박 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

- 특히 올해 4~5월 중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17명으로 모두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 인명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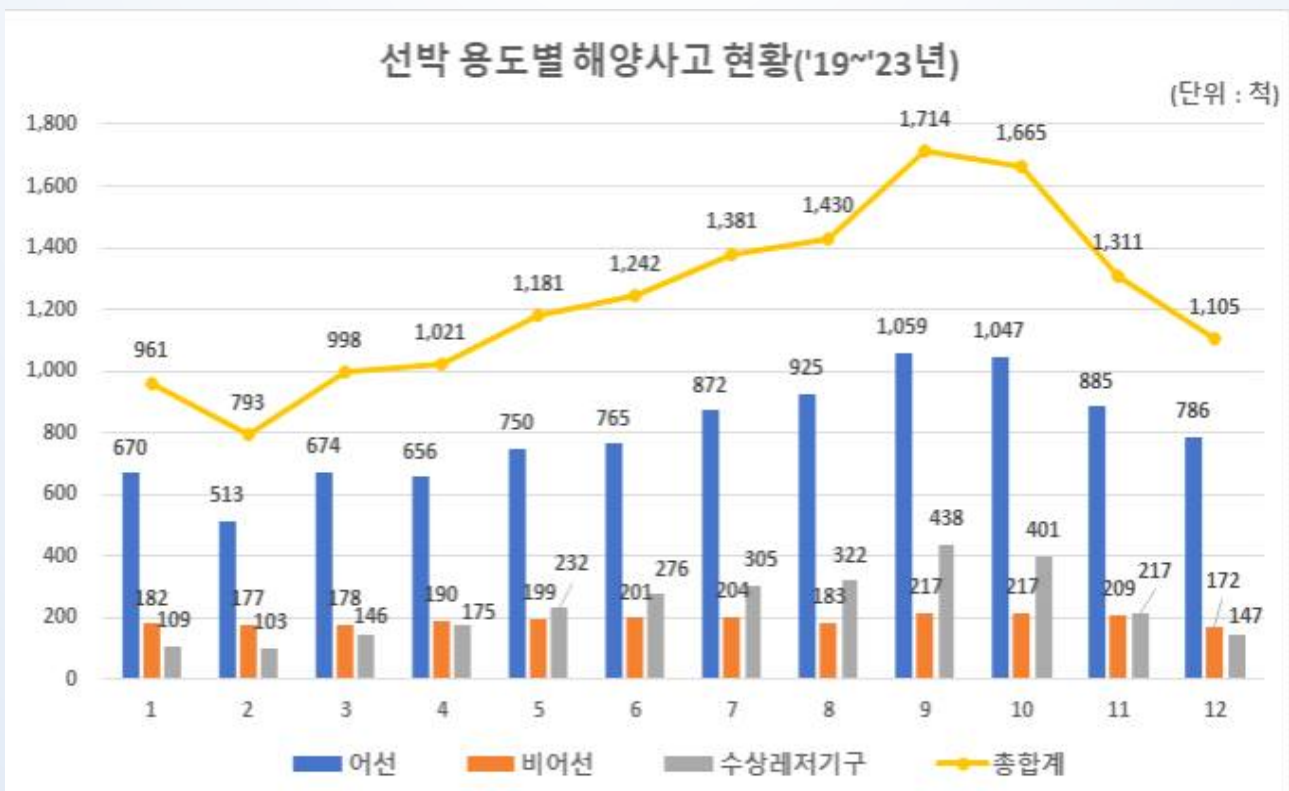
○ (예방대책) 어구·줄 등 사용 전 점검 철저 및 사용 중 안전거리 유지, 통로 위 어구나 줄 등 장애물 적치 금지, 양망기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실시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1. 2024년 6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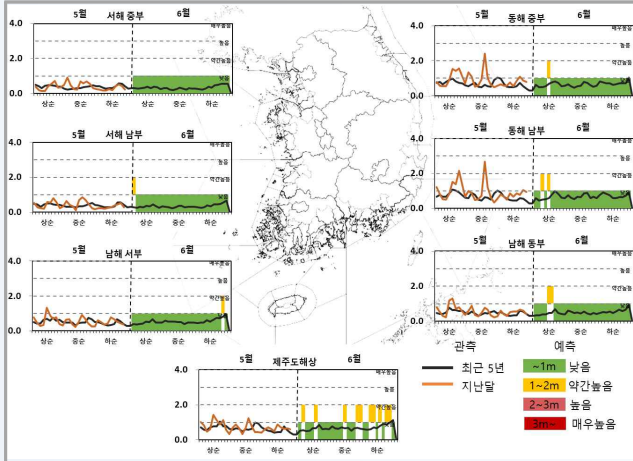
○ 6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5년('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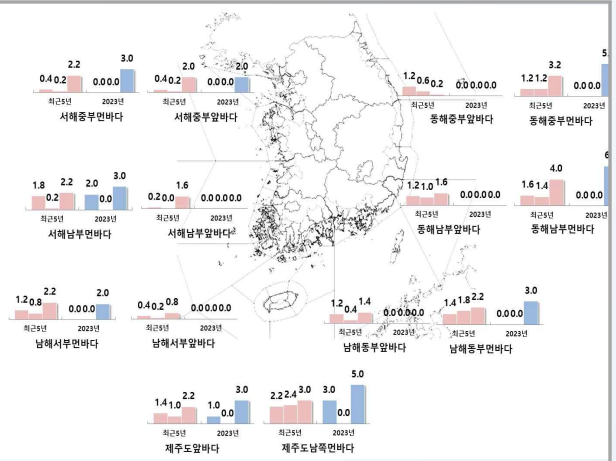
○ '24년 6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최근 5년간('19~'23년) 및 지난해('23년) 6월 풍랑특보일 수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1. 예인선 A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60.26톤, 길이 20.45미터
	일시	2018. 6. 28. 15:02경
	장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등대로부터 327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
	피해	A호: 선원 1명 사망
	날씨	맑은 날씨, 남풍 초속 10미터, 파고 약 1.1미터, 시정 약 10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기관장)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A호가 강도가 약한 계류용 피피로프(PP Rope)를 예인줄로 사용하여 부선을 선미 예인 중, 부선에 연결된 예인줄이 터지면서 A호 선미 갑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 있던 선원(기관장)을 가격하여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줄로 선미 예인할 때에는 예인줄의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예인을 하여야 한다. ○ 예인선열은 예인 중 파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예인줄의 절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원들이 예인줄을 연결한 후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선장은 선내작업 중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2. 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어선, 35톤, 길이 21.8미터
	일시 장소	2023. 6. 12. 06:45경 울산광역시 정자항 동방 19해리 해상
	피해	B호: 선원 1명 사망
	날씨	맑은 날씨, 북서풍 초속 2~4미터, 파고 약 0.5미터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망사건은 어선의 선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은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다 입고 있던 우의의 옷자락이 어구줄에 끼이며 양망 롤러에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인망 어선 조업시 양망기 및 어구줄 등에 선원의 신체나 옷가지가 걸리지 않도록 선원들의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선상 작업 중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찾아 내어 이를 제거하거나 선원들에게 위험요소 및 작업요령을 알려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 선장은 조업 시작 전 선원들의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